

“명의 빌려준 핸드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이야...”

자책감 정신지체 장애 50대 男 자살

10~20만원씩 받고 5대 개통해줘... 경찰 상담도 받아

몇 십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준 '대포 휴대폰'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돼 수천 만원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생겨난 사실을 알고 자책하던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몇십 만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심코 건네줬던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됐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무분별한 휴대폰 개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에 사는 A(58·정신지체장애 3급)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앞길에서 “돈을 좀테

니, 휴대폰화를 만들어 달라”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인근 휴대폰화 대리점으로 향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화 5대를 개통해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100여 만원을 받은 뒤 헤어졌다. 정신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데, “별일 없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화근이 됐다. 얼마 뒤 A씨는 경기 시흥경찰 등 서울·경기지역 4개 경찰서에서 발송한 출두 명령서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A씨는 자초지종을 확인하다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자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화가 이용됐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폰 개통 때문에 수천만원의 피해금액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깨웠다.

경찰도 출두 요청서를 보낼 때만 해도 A씨를 용의자로 봤을 정도다.

A씨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연고도 없는 경찰서를 찾았고 그 때마다 같은 내용의 하소연을 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누군가 정신지체 장애인인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A씨 명의로 이른바 ‘대포 폰’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다섯 차례나 경찰서를 찾으면서 마음 고생도 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죄책감에도 시달렸다.

자존심이 강했던 A씨는 자신의 처

지를 차마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다. 혼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오던 A씨는 수차례에 걸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번번이 미수에 그쳤다.

용기를 낸 A씨는 지난 25일과 26일 광산구 신창동 주민센터와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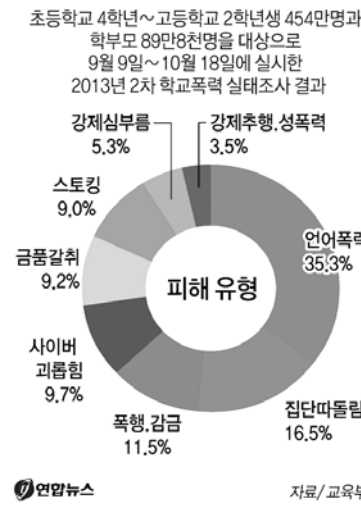
결국, A씨는 다음날인 지난 27일 낮 12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D아파트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은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화 회사에서 한 달 평균 5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화 요금을 납부하라는 독촉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교폭력 줄었지만...

언어폭력·사이버 괴롭힘 비중은 커져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내용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초·중·고생 비율이 약간 줄었으나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생 454만명과 학부모 89만 8000명을 대상으로 9월 9일~10월 18일에 실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9%(7만7000명)으로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조사 때의 2.2%(9만4000명)보다 0.3% 포인트 감소했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2.0%, 고등학교 0.9%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았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35.3%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16.5%), 폭행·감금(11.5%), 사이버 괴롭힘(9.7%), 금품 갈취(9.2%), 강제 심부름(5.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각각 1.3% 포인트, 0.6% 포인트 커졌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 비중이, 학교급이 높을수록 강제심부름, 폭행·감금의 비중이 높았다. 중학생은 금품갈취와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을 비롯한 학교 안(71.6%)에서 발생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7.9%로 지난해 2차 5.7%, 1차 7.2%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나웃침 (9028) 김장두



공사 관련 뇌물수수 목포시 사무관 영장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8일 사기 혐의로 목포시 사무관 김모(59)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 수수 업자 등으로부터 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업자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모델서 콘돔 태워 '불장난' 하다...

○~모델 안에서 콘돔을 태우며 불장난을 한 '정신나간' 40대가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6)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A모텔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콘돔과 비닐에 불을 붙이고 이 때 떨어진 불티로 방바닥 장판을 훼손했다는 것.

○~김씨는 모델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불장난했는데, 경찰에서 “불을 보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검찰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안했다”

박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 발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28일 “현재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 착수’로 볼 수 없다”면서 “정확히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 주체 협의가 팍트”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주체가 없는데 ‘수사 착수’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형사소송법상 통상 절차에 따라

공안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대검찰청 등 다른 검찰청에도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할지를 놓고 대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대검찰청은 조만간 수사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신부의 주거지가 익산이고 시국 미사 장소가 군산 수송동 성당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군산지청 또는 전주지검에서 맡을 개연성이 높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nogusu@

“군산 폭파시켜 버리겠다” 서울서 카센터로 협박전화

폭발물은 발견 안 돼

28일 오전 10시20분께 군산시의 한 카센터로 신원 미상의 남성이 폭파 협박전화를 걸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카센터 주인 정모(49)씨에게 “너희 지역은 문제가 있다.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카센터에 폭탄 두 개를 설치해 줘다”며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군 폭발물 처리반과 경찰, 119구급대 등이 현장에서 폭발물을 찾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전화가 걸려온 곳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건설디자인 사무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협박범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내 일자리는 어디?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호남권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환경관련 학과 학생들이 내부에 설치된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관련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채동욱 의혹’ 가족부 조회 국가기관 관여했나

검찰, 조이제 국장 소환조사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을 28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 국장을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위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을 개물었다.

검찰은 가족부 조회가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확인하고 국가기관이나 구청 직부와 무관한 인물이 관여해 ‘위장 열람’한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지인으로 부터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고 구청 내 개인정보 민원

서류 관리를 총괄하는 ‘OK민원센터’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OK민원센터 직원 김모씨를 최근 조사해 조 국장의 지시로 가족부를 열람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여성연대는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며 조진일모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이 채군의 아동인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동 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010-3690-7790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금금 | 차량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동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대,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나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주임급) 남 0명
-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급프장 유경험자 우대
- 3. 급 여**
 - 연봉제(면접 후 결정)
- 4.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체생활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 이력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및 희망연봉 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7. 접수처**
 - 주 소: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서당매길 242
 - 담 당: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061-320-7717
 - 팩 스: 061-320-7710
 - 이메일: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나스티 컨트리 클럽